

# 광주·서울·부산 잇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열린다

9~10월 광주비엔날레·정부 미술주간·서울아트위크·부산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한민국 미술축제 성공 위한 공동선언  
광주시, 아트페어 연계...통합입장권 할인·관광코스 개발 등 흥행 견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시가 정부, 서울, 부산과 손잡고 가을 시즌 대표 미술행사를 잇는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K-Art Festival)' 흥행을 견인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환 서울1부시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주·부산 비엔날레,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9월 광주와 부산,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유기적으로 잇고 통합 홍보하는 한편 전국을 다채로운 미술축제의 장으로 꾸며 관광객 유입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9월 7~12월 1일, 부산비엔날레는 8월 17~10월 20일,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기간(9월 4~8일)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아트위크는 9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까지 문제부 주도로 '대한민국 미술주간'을 열고 지자체와 공공·민간의 미술 행사 통합 홍보 및 전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올해부터는 광주와 부산, 서울은 물론 미술 관련 각 기관간 전시와 행사 내용, 일정을 연계해 우리나라 대표 미술 축제로 꾸미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8~10월 사이 미술행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미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시설, 숙박, 투어상품 등 관광편의 지원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서울아트위크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종합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등 대표 미술축제는 키아프, 프리즈 등 대형 아트페어, 국공립 미술관 기획 전시 등과 연계 추진한다.

특히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 동안 대형 아트페어 외에도 국·공·사립 미술관과 화랑의 기획전시가 다수 예정돼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9월 4일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전' (展) 개막

과 함께 야간 개장을 통해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와 미술인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해외 미술관 관계자와 언론인 등을 초청해 한국의 미술을 알리는 사업인 인바운드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9월 5~7일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한국미술 담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 통합입장권 할인혜택은 물론 '대한민국 미술축제' 관광코스 개발, 도보 미술여행 상품 판매, 럭셔리 관광 팸투어 등도 추진한다.

광주비엔날레는 부산비엔날레와 통합입장권을 정액 3만4000원에서 30% 할인한 2만3800원에 판매하며, 통합입장권을 소지하면 8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요 미술관을 할인 또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10~15%), 리움(20%), 코리아나 미술관(20~25%), 일민미술관(22%), 수원시립미술관(50%),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20%), 전남도립미술관(무료) 등이다.

한국철도공사도 철도 여행객을 위한 광주비엔날레 등 입장권 연계 KTX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

또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옥외 전광판, 공항·역사 보유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광주비엔날레 등 대표 미술축제를 집중 홍보한다. 해외에도 해외 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주요 전문미술잡지와 협업해 영문판 특별호 발간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한 홍보전에도 나선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식에서 "소규모, 일부 지역에 한정된 예술 축제의 모습을 불러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번 미술 축제에 포함된 전국의 다양한 미술 행사를 국민과 방문 관광객이 두루 즐기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광·교통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시장은 "올해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축제의 장이고, 축제는 사회통합의 장이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미술을 매개로 어우러진다"면서 "광주의 소중한 축적 자산인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서울, 부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상환 서울1부시장 직무대리(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의원은)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

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시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에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 한 기업인이다"라며 "제가 당의 많은 분이 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무안공항, 내년 KTX 연결...공항 활성화 움직임 본격화

### 전남도·6개 시군 협력키로

내년 무안국제공항으로 KTX 호남고속철도가 연결되는 것을 계기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뿐 아니라 공평 인근 서남권 6개 인근 시군이 처음으로 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손을 맞잡는다면, 지방 시대의원회까지 나서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

전구상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공항 활성화를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목포·영암·무안·함평·영광·신안, 전남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6개 시·군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에 정기선을 유치하는 항공사업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현재 분기당 4억원의 운항 장려금을 항공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외 다른 자치단체가 참여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또 무안공항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각 지역에서 무안 공항을 오가는 대중교통 노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항 이용객에 대한 관광지 및 숙박시설 안내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 회유 논란 ▶6면  
문화시민으로 살아가기 - 광주미술관회 ▶11면  
타이거즈 전담대 - 고척·잠실 원정 6연전 ▶22면



##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